

광주소년원

○ 매체 : 남도일보(2026. 8. 31.)

○ 제목 : “오늘 나갈 수 있지만”...자격증 위해 남은 소년원생들

"오늘 나갈 수 있지만"...자격증 위해 남은 소년원생들

광주소년원 30명 기능사 실기 응시
9명은 임시퇴원 일정까지 조정
사회복귀 앞두고 기술로 미래 준비
직업훈련 전문소년원 역할 강화



광주소년원생 9명이 퇴원보다 자격증 시험을 선택했다. 사회복귀를 앞둔 이들은 임시퇴원 일정까지 미루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했다.

법무부 광주소년원은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6년 제3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학생 3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전기기능사, 운수운송기능사 등 3개 종목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응시생들은 광주소년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실기시험에 임했다.

눈길을 끈 것은 9명의 선택이다. 이들은 이날 아침 임시퇴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퇴원 시간을 스스로 늦췄다.

이들에게 시험은 단순히 국가기술자격 하나를 추가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1년 가까이 사회복귀를 기다리며 준비해온 기술을 확인하고, 출원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의미가 컸다.

특히 퇴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당장의 사회복귀보다 자격증 취득을 우선한 것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광주소년원은 학생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동차정비반과 스마트전기반, 신재생에너지반, 소형건설기계반 등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1명의 학생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회로 진출했다. 단순 보호와 교육을 넘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